



(Diachronic synopsis)

돌아가면서 읽기 (Reading one by one)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빛, 둘째 날-궁창, 셋째 날-육지와 바다, 그리고 땅에 풀, 씨 맺는 채소,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 넷째 날-우주-해, 달, 별들, 사계의 일 월 연한을 이루시고 다섯째 날-새들, 물고기들, 여섯째 날-기는 것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진화론 때문에 고민하고 일요일도 일하는데...

Contents

- 1.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
2. 고대인들의 신(神)들에 대한 이해
- 3.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 4.하나님의 형상”(창1:26-27)
- 5.진화의 결정체, 의계인의 존재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짐승, 육축, 땅에 기는 것들은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종류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된 유일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면서 천하 만물의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지으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물과 물이 나뉘도록 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땅에 그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지으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만상을 이루시고 천체를 운행시키시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시고 밤과 낮을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각종 새들을 만드시고 하늘을 날게 하시며 또한 물에는 각양의 물고기를 지어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땅에 풀어 놓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피조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창1:25)

여섯째 날에 짐승과 육축,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생명체가 지음 받음으로써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인간의 창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활동할 무대가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창1:26-27) 하나님께서는 먼저 흙을 취하시고 인간의 형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인간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피조세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단순히 흙으로만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임해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듯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2:7)

이 생령이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 1)으로 이끌어 오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창2:15) 그러나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혼자 지내는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그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지으신 하와를 이끌어 오시고 아담에게 배필로 주시면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가 되었고 인간 최초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창1:27-28, 2:21-23)

여기서 우리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저급한 생명체로부터 진화되었

다고 하는 유물론적 사고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뱀의 유혹을 받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타락하고 낙원에서 쫓겨나 자신의 삶을 다 마친 후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창3:19)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아담과 하와와 같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은 ‘육체’와 함께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2

고대인들의 신(神)들에 대한 이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인간들의 지혜는 어두워 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만큼 어둡고 불안정한 삶의 자리에 놓인 인간들은 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창조자를 쉽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탐구의 대상은 신(神)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대인들의 지성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천지의 만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의 피조세계가 신들에 의하여 창조되었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진정한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은 알지 못했으며 그 결과 그들 스스로 피조세계를 지배하는 수많은 신들을 창조해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음에도 지음 받은 인간들은 스스로 수많은 신들을 창조해 냈습니다. 신들을 창조해 낸 인간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런 저런 모양으로 형상화 했습니다. 고대 신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은 신들은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유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한번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앓은뱅이를 만났는데 그를 향하여 '네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앓은뱅이가 일어나 뛰어 걸어갔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행14:8-18)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메라고 했습니다.²⁾ 루스드라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신인동형론³⁾으로서 고대인들의 신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3

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성경 본문 창세기 1장 26, 2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חֶלֶם, חֶלֶם)과 모양(דְמוּת, דְמוּת)에 대하여 통일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학자들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어떤 특징들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있는 육체적, 심리적, 영적인 자질로 이해하고 그 특징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인간사이, 혹은 두 인간 혹은 더 많은 '인간 간의 관계의 경험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인간에게 있는, 혹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⁴⁾

독일의 종교 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의 '형상'

과 '모양'을 같은 맥락으로 보았으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양상들은 타락했으며 또 남아 있다면 하나님의 모양을 구성하는 모든 것의 파편들만이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소실되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 칼뱅은 좀 더 다른 견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적 타락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관계한다고 했습니다. 칼뱅의 견해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 인간의 이성으로 더듬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22. ...아덴(아테네)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

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년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27.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행17:22,26-27)

칼뱅의 견해대로라면 인간 안에 남겨진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로 인해 '혹 더듬어 찾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견해대로라면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파편만이 남아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학자들의 견해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어 하는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 또는 나무, 돌과 같은 자연을 신격화하고 섬겼으며 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숭배에 빠져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능력, 신성을 깃들여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롬1:19-20)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 진리, 의, 거룩함, 지혜, 사랑, 자비, 긍휼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4

하나님의 형상”(창1:26-27)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지만 자신들도 알기 쉽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또한 만져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예수께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14:9)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 '전능', '진리', '생명', '의', '공평', '사랑', '지혜', '자비' 등과 같은 하나님 형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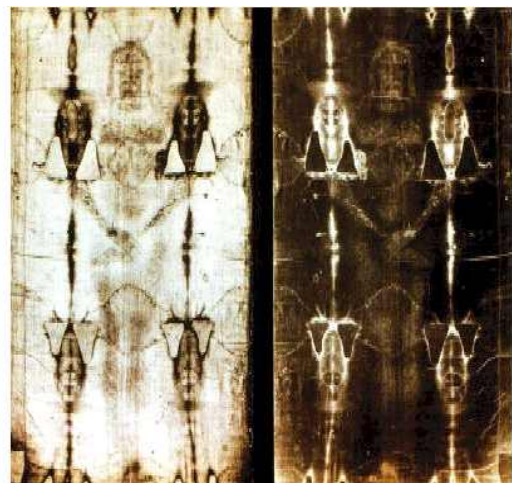
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으나 찾지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1:15-17)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978년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이 소장하고 있

는 예수님의 수의라고 알려진 천에서 한 남자의 얼굴이 촬영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는 과학자들에 의해 14세기의 것이라고 판정이 내려지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시며, 빛으로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질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요일4:16,요일1:7,요4:24) 그런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헛된 우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기게 되었고 지금도 눈에 보여지는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습니다.

5

진화의 결정체, 외계인의 존재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서 외계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외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으로서 진화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많은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원시해양의 무기물이 자연적 현상에 의하여 유기물로 되고, 또 저급한 생명체에서 고급한, 그리고 복잡한 유기적 생명체로 진화되었을 것이라는 그릇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체가 살만한 생태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어떤 별에 인간과 같이 진화한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던 외계인은 문화의 옷 입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4월 영국 BBC에서 시작한 유아 방

송 프로그램인 <텔레토비, Teletubbies>에 귀여운 어린 외계인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25개국에 수출되었고 온 세상 어린이들에게 외계인을 현실화시켰습니다. 이 텔레토비 프로그램은 1998년 10월 한국의 KBS 2TV에 <꼬꼬마 텔레토비>란 이름으로 방영되면서 한국 내에서도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 후 아이들의 책과 아동 상품에 유에프오와 귀여운 외계인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가상 외계인은 영화 산업의 영향으로 더욱 사람들에게 가까운 현실로 들어왔습니다. 19세기 말, 1890년대 중반에 활동사진(moving picture)이 등장하면서 시작된 영화는 20세기 말에 이르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이러한 영화 산업의 등장과 함께 외계인과 인간과의 감동 또는 갈등을 다루는 SF 영화들이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외계인은 하나의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외계인을 현실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인식하는 '외계인'의 존재는 진화론자와 문화 산업자본이 함께 만들어 놓은 '상상의 산물'입니다.

성경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천지 창조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둘째 날에 궁창을,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그리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넷째 날에는 궁창의 해와 달과 별을, 즉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의 창조로 인해 생명체들이 살아갈 무대가 모두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부터 생명체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공중에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어 생명들이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육축과 기는 것들과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지으신 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부터 유기적 생명체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수놓아 은하계를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 생명체는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주 공간의 수많은 별들은 진화론자들이 기대하는 바와 다르게 그냥 공허하게 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외계에서는 박테리아와 같은 생명체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책 속에는 유에프오를 탄 외계인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외계인은 무신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용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3)신인동형론

원시종교 이후 사물과 자연, 신 등에 대하여 인간의 본질과 특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과 관련하여 고대인들은 신적 특성에 인간의 형상과 특성을 부여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수많은 신들을 착안해 내었다.

4)복음주의 조직신학, 밀라드J.에릭슨 p.64,리더스 다이제스트, 순서대로, (실재적 형상관-Substantive View) , (관계적 형상관-Relational Views), (기능적 형상관-Functional View)

5) 아직까지 유기적 생명체가 아닌 단세포 미생물인 박테리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화론자들이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물이다. 우주의 어떤 별에서, 예를 들면 화성에서 물의 흔적이라도 발견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유에프오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크게 반응하는데 그 이유는 외계인은 진화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며 외계에서 물의 흔적이라도 찾아야 진화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에덴동산 추정지역



2)쓰스, 허메

쓰스는 헬라의 신 제우스를 말한다. 허메는 제우스의 아들 신 헤르메스로서 신들의 대변자, 신탁의 전달자인데 바울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그의 설교에 감명받아 바울을 허메라고 했다.

김민호 목사/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졸업/ 장로회 신학대학원 졸업
/성경 번역 협의회 연구위원/ 한국 음악저작권 협회
(KOMCA) 회원, Composer/ Dongwon Production 전
대표/ 전 파워 잉글리쉬 대표/ 예수만나기 선교회 대
표/ 예수만나기 인터넷 방송국 www.seeJESUS.TV 대표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사랑의 빛 교회 담임목사/

저서: 청년들아, 고기는 이렇게 잡는 거야(예찬사).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오(합주곡집 예찬사)/ 한 쪽 성
경공부(One Page Bible Study 29)/ 마지막 때, 계시록
이 열린다/ 외

작품: 제3회, 제9회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나의
하나님, 기억하소서)/ 제1회CBS창작복음성가제.(눈물이
없이는 말할 수 없네) 외/ 외침찬양선교단.(두려워말라
외)

©저작권/

OBS_20030808_r2011007481_201207150000_T1_12040
6_120826_20121124_20220419_ver.9.07_r

성경본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 **하나님과 인간** 삶의 적용

내 생각 말해보기

태초/ 인간의 본질/ 인간과 쉼/ 산맥 돌출/ 우주의 크기는 / 빅뱅의 년센스

읽을 본문 창1:1-2:3/ 창1:24-31 천지창조

24.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그대로 되니라) 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1)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창2:20-25 여자 창조

20.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 25.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성경 찾기

- 1)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복을 받은 피조물은 누구누구입니까?
창1:20-23, 1:24-28
- 2)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끌어 갈 인간 역사의 두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창1:27
- 3)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동물들이 먹어야 할 식물은 무엇이였습니까?
창1:29-30
- 4)하나님께서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뉘실 때 바다에 살던 물고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창1:9-10/창1:20-21/벧후3:5

5)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생령이 된 인간이 가진 두 가지 본질은 무엇입니까? 창2:7

6)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창1:2/ 창1:26



마음에 담기

- 1)"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은 어떤 모습입니까?
1)요4:24, 2)요일4:8,4:16, 3)요일1:5
4) 레11:45
- 2)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골1:15, 2)고후4:4, 3)히1:3, 4)요12:44-45
- 3)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간에게 부어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1)요일5:20, 2)롬8:29, 3)엡4:13
- 4)인간은 어디까지 구원받아야 합니까?
1)창2:7, 2)약2:26, 3)벧전1:9 4)고전15:44
- 5)1:26, 1:27에 관련하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과 부부가 서로 싸우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6)남자와 여자는 부부의 관점에서 서로 어떠한 관계입니까? 1)창2:22-23
- 7)셋째 날 은하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섯째, 여섯째 날에 새들과 물고기, 그리고 짐승과 인간의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계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 8)주일에 거룩하게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복이 되지 않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1)창2:3